

“한국지엠, 불법파견 부정하더니 관리직 불법 대체 투입”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총고용보장 기자회견...원청, 인소싱 강행·비정규직 합법 쟁의 방해, 폭행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지난 10월말부터 ‘총고용보장, 노조할 권리, 업체 폐업 시 고용·노동조건·근속 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 원청은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과 폭행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월 13일 ‘비정규직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회는 창원공장 식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지엠, 혼재근무 실시로 불법파견 자행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이 비정규직지회 파업 현장에 관리직 대체 인력을 투

입했다. 이 행위 자체가 불법파견을 인정한 행위”라며 “한국지엠 자본은 노노 갈등을 조장을 중단하고 직접 대화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9일과 10일에 관리직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지난 10일 비정규직과 원청관리자들이 같은 공정에서 함께 일하는 혼재작업이 이뤄졌다. 혼재작업은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지회는 “한국지엠은 지금까지 혼재작업이 아니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겼다. 실제 원하청 혼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비정규직 공정에 원청의 파업 대체인력 투입은 그 자체로 원청이 직접 사용자임을 보

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으며, 지회는 지난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승소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

한국지엠은 지회의 합법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 13일 공장 정문 앞 집회 참석한 노동자들을 관리직을 동원해 위협했다. 한국지엠의 한 관리자는 집회 방해에 항의하는 김희근 지회장을 폭행했다. 김희근 지회장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뺨을 때렸다고 지목한 관리자는 범행을 부인했다. 김희근 지회장은 “사측에서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포항 5.4 규모 지진, 노조 사업장 피해당해

포항, 경주지부 일부 사업장 작업중지권 발동...공장 내진 보강, 대피훈련 필요

경북 포항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경주지부 소속 지회들은 지진 발생 즉시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조합원들을 대피시켰다.

지난해 7월 5일 울산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9월 12일 경주에서 진도 5.8 규



안전진단과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상황 발생 즉시 작업중지권 발동과 대피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진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등 핵발전소가 가까운 곳에서 자주

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영남지역에서 큰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재석 노조 포항지부 조직부장은 “지회들은 지진이 발생하자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합원들을 작업장 밖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했다”라며 “진앙인 포항 북구 쪽 사업장들은 조합원들을 퇴근시켰고, 남구 쪽 현장들은 15시 30분 현재 작업을 재개한 것으

로 확인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진앙과 가까운 경주지역 일부 사업장도 작업중지 후 조합원들을 퇴근시켰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현재 정상작업 중이다. 울산공장은 진도 6 기준 내진설계가 돼 있다.

영남 조합원들은 경주와 울산,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장건물의

발생해 핵발전소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포항지부 일부 사업장 건물에 금이 가고 파편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등 영남 시민들은 큰 진동을 느꼈다.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조합 사무실 건물에서도 5초 정도 진동을 느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선출 직접선거 본격 시동

11개 지역본부 23명 금속노조 조합원 입후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투표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와 함께 16개 지역본부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16개 지역본부에 모두 24개 조가 후보 등록했다. 각 지역본부 후보들 가운데 금속노조 조합원은 11개 지역본부 23명이다.

금속노조 조합원 출마가 가장 많은 지역본부는 울산지역본부로 6명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을 했다. 서울

본부 1명, 경기본부 2명, 인천본부 2명, 충북본부 1명, 전북본부 1명, 광주본부 2명, 경남본부 2명, 경북본부 2명, 대구본부 2명, 세종충남 2명이 후보로 나섰다. 후보들은 11월 29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들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투표구별로 1차 투표를 해야 한다. 이번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금속노조 조합원 173,374명이 선거인 등

등록을 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현장투표(166,875명), ARS투표(1,267명), 모바일투표(5,232명) 등 세 가지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각 지역본부 후보자의 공약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odong.org/elec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